

18·19세기 소수서원의 院生 연구*

- 「소수서원 입원록(紹修書院 入院錄)」 제2권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Students of Sosoo-Seowon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Mainly for 2nd Volume of the Registry of Sosoo-Seowon

송 정 숙(Song, Jung-Sook)**

◁ 목 차 ▷

1. 서 론	3.1.2 출신 지역
2. 「소수서원 입원록」제2권의 서지적 형태	3.2 원생의 입원 연령과 과거 급제
3.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의 분석	3.2.1 입원 연령
3.1 원생의 인적 구성	3.2.2 과거 급제의 소요 연한
3.1.1 입원 인원	4. 결 론
	<참고문헌>

< 초 록 >

이 연구에서는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을 대상으로 18·19세기 소수서원 원생의 인적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입원 인원, 출신 지역, 입원 연령, 입원 후 생원진사시와 문과 급제의 소요연한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16·17세기와 비교하여 변모양상도 파악하였다.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에 수록된 1790년부터 1888년까지의 99년 동안의 입원생 1,805명을 대상으로 입원 연도를 분석한 결과 입원생은 한 해에 대략 10명 이었지만 많을 때에는 26여명에 달하였다. '취인'이라 하여 한 해에 68명에서 369명까지 대규모로 입원한 해도 있었다. 출신지역은 경북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 출신이 대다수인데, 특히 안동, 영주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입원생의 연령은 15세부터 74세로 16·17세기보다 입원연령의 폭이 넓어졌으며, 고령인 60대와 70대가 125명으로 전체의 7.6%나 되었다. 16·17세기보다 고령화되어 18·19세기의 입원생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40대의 순이었다.

과거급제 정도를 보면, 1,805명 가운데 생원·진사시 합격자가 143명으로 전체의 8%를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07년 9월 15일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주최 제10회 기획학술대회 <영남 지역 고문서자료의 현황과 가치>에서 발표한 “소수서원 입원록(入院錄) 연구; 18·19세기를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is@pusan.ac.kr)

접수일: 2008년 12월 5일 최초심사일: 2008년 12월 7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18일

차지한다. 이 가운데 78명이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이후에 서원에 입원하였다. 문과 급제자는 61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42명은 문과에 급제한 후에 소수서원에 입원하였다. 이를 볼 때 18·19세기에 이르면 당시 선비들에게 소수서원은 과거 준비기관으로서의 의미는 다소 퇴색하고, 서원 입원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고 파악된다.

이렇게 18·19세기에 이르면 원생의 출신 지역의 범위가 좁혀지고, 입원연령이 고령화 되고, 원생 가운데 생원·진사시나 문과급제자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아울러 생원·진사시나 문과 급제 후 서원에 입원하는 경향은 서원이 남설되는 당시의 사회적 환경, 재정이 고갈되어 선비를 기를 수 없는 소수서원의 열악한 재정 상황, 남인의 정치적 몰락으로 과거에 급제하더라도 중앙정계로의 진출에 제약이 있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 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위기지학을 추구하는 영남사림의 학문적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要語: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 소수서원, 백운동서원, 주세붕, 원생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tudents composition when to enter Sosoo-Seowon(紹修書院), where to come from, what age to enter, when to pass the government service examination, based on the 2nd volume of the Register List of Sosoo-Seow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

1,805 students admitted this School during the years of 1790 to 1888, with 10 to 26 new students enter per one year. By the way, in 1850s the size of registered students was the largest.

Students came from many areas nearby Kyungsangbuk-Do. 90% of the Students came from Kyungsangbuk-Do. Especially 82% of the Students came from Andong and YoungJoo.

The age of students were 15 to 74 years old. But the age of 30s were the largest.

The number of the students who passed the examination for admission of Seonggyunkwan National College called Sangwon-Jinsa-Si(生員進士試) among the total 1,805 students was 143. The number of the students who passed the government service examination called Moonkwa(文科) among the total 1,805 students was 61.

Key words: 2nd Volume of the Register List of Sosoo-Seowon(紹修書院 入院錄 第2卷), Sosoo-Seowon(紹修書院), Chu-Seboong(周世鵬). Students of Seowon(院生)

1. 서론

1541(중종 36)년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은 부임한 지 사흘만에 안향이 공부했던 죽계를 방문하고는 그를 모시는 사당을 건립할 뜻을 가져 1542년에 사당을, 1543년에는 백운동서원을 건립하였다. 주세붕의 후임으로 부임한 풍기군수 이황이 요청하여 소수서원으로 사액됨에 따라 조선중기 지방에 학문이 크게 일어났다. 이후 서원의 건립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제향과 교육을 위해 설립된 서원의 영향력은 여러 방면에서 향촌사회에서 중앙정계로 확대되었다.

서원에 대해서는 서원의 성립과 발전·폐단, 정치적 역할과 성향, 경제적 기반, 향촌사회에서 서원의 위상, 교육활동과 제도 등 정치·경제·사회·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서원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도 과거에는 실록 등의 연대기자료 중심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 조두록(俎頭錄)과 각종 문집,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원등록(書院騰錄), 서원지(書院誌), 서원일기(書院日記), 통문(通文) 등의 고문서가 연구에 이용되어 서원의 구체적인 활동양상이 밝혀지고 있다.¹⁾ 그 가운데 교육기관인 서원을 구성하는 인적 구성인 원임(院任)과 원생(院生), 즉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도 차츰 이루어지고 있다.²⁾

연구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의 입원생 명부인 「소수서원 입원록(紹修書院 入院錄)」을 분석함으로써 서원과 원생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소수서원 입원록은 2권으로 되어 있는데, 16·17세기의 소수서원 입원생의

1) 鄭萬祚, “最近의 書院研究 動向에 관한 檢討”, 『朝鮮時代 書院研究』(서울: 집문당, 1997), 329-353 참조.

2) 姜祥澤, “朝鮮後期 慶南地域의 書院 研究,”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 73-100, 163-174 ; 이수환, “서원의 人的 構成과 운영 : 院任·院生을 중심으로,” 『朝鮮後期 書院研究』(서울: 일조각, 2002), 104-156. ; 윤희면, “院任의 구성과 신분,”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과주: 집문당, 2004), 187-216. ; 윤희면, “額內院生의 사회적 성격과 신분,” 『유헌』, 251-297. ; 송정숙, “『紹修書院 入院錄』 분석 : 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제34집(2006.9), 63-100 ; 송정숙, “『紹修書院 任事錄』 연구 : 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제38집(2007.9), 103-127.

명부인 「소수서원 입원록」 제1권의 분석³⁾에 이어 이 연구에서는 18·19세기의 소수서원 입원생의 명부인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을 분석하고자 한다.

18·19세기에는 소수서원에 원생이 한 해에 몇 명씩 입원했으며, 어느 지역에서 왔으며, 몇 살에 입원했으며, 서원에 입원한 지 몇 년 만에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지 등 18·19세기 소수서원의 원생과 관련한 여러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분석 결과를 16·17세기와 비교하여 소수서원 원생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 변모양상도 파악하고자 한다.

2.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의 서지적 형태

소수서원 입원록은 소수서원에 수학했던 유생들의 명부이다⁴⁾. 입원연월일 아래에 입원한 유생의 성명, 자(字)와 생년이 간지로 표기되어 있고, 그 아래에 司馬 혹은 文科, 그 아래에 관직,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입원연월일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얼마 동안 수학하고 퇴원했는지는 알 수 없다.

제1권⁵⁾은 백운동서원이 건립된 1543년부터 1696(숙종 22)년까지 153년 동안 소수서원에 입원한 유생 735명의 명부이다.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영주 소수서원에는 없고, 현재 안동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다. 제2권은 1790(정조 14)년부터 1888(고종 25)년까지 99년간의 입원생 1,805명의 명부⁶⁾로서 현재 영주 소수서원에 소장되어 있다.

소수서원 입원록」 제1권과 제2권을 합하면, 현재 밝혀진 소수서원 입원생은

3) 송정숙, “『紹修書院 入院錄』 분석 : 16·17세기를 중심으로”, 앞책, 63-100.

4) 서원에 입원하여 수학했던 유생들의 명부는 ‘靑衿錄’, ‘入院錄’ 혹은 ‘遊院錄’으로 불리웠다.

5) 소수서원 입원록 제1권은 1993년에 『退溪學研究(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제7집(1993.11)에 정진형(鄭鎭炯)이 “도산서원 소장 「소수서원 입원록」해제”라는 논문을 원본 영인과 함께 학계에 소개하였다.

6)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에 1,805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휘발과 이휘병이 두 번 기재되어 “重出”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하여 중복을 제외하면 1,803명이 된다.

2,540명이다. 그런데 1697년부터 1789년까지 92년간은 입원록이 전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의 입원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이 92년 동안 제1권의 비율대로 입원했다면 입원생이 500여 명이 될 것이고, 제2권의 비율대로 입원했다면, 입원생이 1,500여 명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소수서원에는 창건된 1543년부터 마지막으로 원생이 입원한 1888년까지 345년 동안 적게는 3,000여 명에서 많게는 4,000여명의 유생들이 입원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심성을 닦았을 것으로 보아진다.⁷⁾

이 연구의 대상인 소수서원 입원록(紹修書院 入院錄) 제2권은 본문의 첫 행에 ‘紹修書院入院錄第二卷’이라 기록한 후 그 아래에 ‘自復邑後/ 計之兼第/ 二卷’이라는 기록이 小字의 3행으로 적혀있다. 다음 행에 ‘正宗十四/ 年’ 이 小字雙行으로 적혀있고 이어서 ‘庚戌九月 日’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제2권은 1790(正祖 14)년 9월부터 戊子 九月初八日 즉, 1888(高宗 25)년 9월 8일까지 99년 동안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수서원 입원록(紹修書院 入院錄) 제2권의 서지적 형태를 보면, 필사본으로 성책고문서이다. 크기는 세로 33.2cm, 가로 29.2cm이고, 표지를 제외한 본문이 모두 121張으로 이루어져 있다.⁸⁾ 각 面당 주로 7行씩 기록하였지만, 8행 혹은 10행으로 기록한 곳도 있어 모두 1,805명이 등재되어 있다.

서원 입원생에 관한 기록인 입원록의 작성에 대해서는 주세붕이 1545(인종 1)년 4월에 작성한 <백운동서원 원규>에 “별도로 입원록(入院錄)을 비치하여, 서원에 들어오는 모든 선비들에게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직접 기록하게 하고, 또한 그가 들어온 연월일을 기록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런 연유로 소수서원에서 입원록이 작성되어 현재까지 전한다. 현재 전하는 소수서원 입원록(紹修書院 入院錄)은 원규에서 정하듯이 입원하는 선비들이 직접 자필로 성명과 입원연월일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전사(傳寫)한 것으로 보인다.

7) 박석홍, “신재(愼齋) 선생과 紹修書院”, 文敏公 愼齋 周世鵬先生 誕辰500週年 追慕學術大會 발표문, (1994.11.26.), 참조.

8) 남권희 외, 『紹修書院所藏 古書 및 古文書 解題』(영주 : 소수서원, 1998), 38-39.

입원록을 작성하게 하는 이유는 주세붕이 1545년에 작성한 다음의 <백운서원방(白雲書院榜)>과 <백운동서원 원규(白雲洞書院院規)>에 잘 나타나 있다.

대개 성명을 기록하는 것이 어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는가. 뒤에 찾아온 이가 성명을 열람하면서 아무개는 수신(修身)을 위한 학문을 하였고, 아무개는 출세를 위한 학문을 하였고, 아무개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아무개는 죽어서도 세상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말하게 될 것이다. 출세를 하고 못함이야 본래 다르지만, 현우(賢愚)의 차이 또한 현격하다. 아, 어찌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찌 힘쓰지 않으랴.⁹⁾

이를 볼 때 서원 원생들이 입원록에 이름을 남기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서원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겠다.

3.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의 분석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에는 입원한 연월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성명 밑에 자(字)와 생년이 간지로 표기되어 있고, 그 아래에 司馬 혹은 文科, 그 아래에 관직,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입원생 1,805명 가운데 1,600여명은 자와 생년이 기재되어 있고, 과거 급제나 관직은 해당자만 기재하였으므로 일부만 기재되어 있으며, 거주지도 소수만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사마시나 문과 급제자의 경우 자와 생년을 확인한 후 사마방목과 문과 방목을 통해 급제연도, 생년, 관향, 거주지를 보충하였고, 관직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더러는 방목에서 개인의 전기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周世鵬, “백운서원방(白雲書院榜)”, “백운동서원 원규(白雲洞書院院規)”, 嶺南文獻研究所 編, 『紹修書院誌』(영주: 紹修書院, 2007), 274, 277.

3.1 원생의 인적 구성

3.1.1 입원 인원

1790(정조 14)년부터 1888(고종 25)년까지 99년 동안 소수서원에 한 해 몇 명씩 입학했는지 입학연도에 따른 입원 인원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1>과 같다. 입원 연도는 역조와 간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표 1> 입원 인원 분석

입원 년도	명(%)	입원 년도	명(%)	입원 년도	명(%)	입원 년도	명(%)
1790	5	1820	3	1850	26	1880	4
1791	3	1821	1	1851	0	1881	4
1792	12	1822	5	1852	0	1882	369
1793	7	1823	4	1853	5	1883	1
1794	14	1824	0	1854	4	1884	3
1795	23	1825	3	1855	5	1885	3
1796	97	1826	2	1856	7	1886	0
1797	8	1827	1	1857	0	1887	22
1798	10	1828	6	1858	168	1888	4
1799	1	1829	0	1859	91		
1800	0	1830	0	1860	25	계 : 1,805명 (100%)	
1801	0	1831	8	1861	15		
1802	0	1832	1	1862	0		
1803	0	1833	15	1863	17		
1804	0	1834	8	1864	22		
1805	0	1835	141	1865	6		
1806	11	1836	2	1866	0		
1807	106	1837	0	1867	0		
1808	7	1838	5	1868	2		
1809	0	1839	9	1869	0		
1810	5	1840	131	1870	13		
1811	4	1841	0	1871	3		
1812	5	1842	3	1872	200		
1813	1	1843	1	1873	68		
1814	11	1844	0	1874	1		
1815	9	1845	5	1875	1		
1816	0	1846	13	1876	0		
1817	0	1847	0	1877	5		
1818	0	1848	5	1878	0		
1819	0	1849	2	1879	0		

위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1) 한 해에 대략 10명 이내가 입원했다. 1790년에서 1888년까지 99년 동안에 입원생이 1명에서 10명 사이인 해가 47년이고, 11명에서 20명(실제 11명-17명)까지인 해가 9년, 21명에서 30명(실제 22명-26명)까지인 해가 5년이였다.

2)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해는 29년이나 되었다. 1800년, 1802년부터 1805년까지의 4년간, 1807년, 1809년, 1816년부터 1819년까지의 4년간, 1824년, 1829년, 1830년, 1837년, 1841년, 1844년, 1847년, 1851년, 1852년, 1857년, 1862년, 1866년, 1867년, 1869년, 1876년, 1878년, 1879년, 1886년 등의 29년이나 된다.

3) 평시와 달리 대규모의 원생이 입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입원연월일 아래에 “取人榜” 혹은 “取人” 이라는 표기 아래에 입원생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丙辰(1796)九月初四日 取人榜” 아래에 97명, “丁卯(1807)九月初九日 取人榜” 아래에 106명, “乙未(1835)九月一日 取人” 다음에 116명, “庚子(1840)三月七日 取人榜” 다음에 126명, “戊午(1858)三月一日 取人榜” 다음에 168명, “己未(1859)九月初一日 取人榜” 다음에 91명, “庚申(1860)九月六日 取人榜” 다음에 25명, “壬申(1872)三月 取人榜” 다음에 200명, “壬午(1882)八月日 取人榜” 다음에 362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乙未(1835)九月一日에 3명, 丙申三月四일에 3명의 명단이 기록된 다음에 “乙未九月一日 取人” 이라고 하여 116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取人”은 통상적인 입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취인이라고 하여 대규모의 원생이 입학한 것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인원이 등재된 해는 1850년으로 2월 8명, 3월에 18명이 등재되어 모두 26명이 등재되었다.

4) 일정한 입원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한 해에 여러 번 원생이 입원한 적도 있고, 입원생이 없는 해도 있기 때문이다.

소수서원의 운영규정이라 할 수 있는 거재절목(居齋節目)에서 원생의 입원과 관련된 사항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780년 10월 20일 거재절목

○ 상시로 숙식을 제공하는 정원을 10명으로 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

는 규례이다. 돌아가며 입재하고 삭망에 교체하되, 급방 갔다가 돌아와 유명무실하여 거재의 본의를 크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

○ 거재유생은 본읍과 타읍을 막론하고 모두 입재를 허가한다. 그러나 입재하는 날 모인 인원이 많으면 연소자는 연장자에게 양보하고, 가까이 거주하는 자는 먼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양보하여 정원을 채운다.

○ 연로한 유생으로서 학업을 그만두지 않은 이는 나이에 구애하지 말고 입재를 허가한다. 비록 거재하여 강독하는 데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독과 통독을 할 때에는 재생과 더불어 돌아가면서 의심스러운 것을 문답하여 신진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한다.¹⁰⁾

위의 절목을 볼 때 18·19세기에 한 해에 10명 정도 입원하는 것은 전해오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들은 거재하여 독서하는 원생, 즉 서원에서 기숙하며 공부하는 원생이다. 그런데 원생이 10명 이상으로 수용인원을 초과한 경우는 1개월에 두 번 초하루와 보름날에 교체하여 탄력적으로 수용했다. 그리고 “취인”이라 하여 한 번에 많은 학생이 입원한 경우는 이들이 모두 서원에서 기숙하며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원에 거재하는 원생의 수와 입원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1730년 11월의 거재절목(居齋節目)인 “학궁에서는 본래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고, 가는 자를 붙잡지 않는 법이다. 만약 강학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구태여 서원에 머물까닭이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주문공의 백록동서원 학령(學令)이 아닌가.”¹¹⁾에서 보듯이 언제나 입학이 가능한 상시 입학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3.1.2 출신 지역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에 수록된 원생 1,805명 가운데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거나 방목을 통해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283명을 대상으로 입원생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10) “1780년 10월 20일의 거재절목(居齋節目)”, 嶺南文獻研究所 編, 앞책, 418.

11) “1730년 11월 일 거재절목(居齋節目)”, 嶺南文獻研究所 編, 앞책, 412.

<표 2> 출신 지역 분석

도(지역)	지역	인원수(%)		도(지역)	지역	인원수(%)			
서울·경기(2)	京	18	19 (6.7%)	경북 (19)	榮川	44	254 (89.8%)		
	龍仁	1			英陽	1			
강원(1)	原州	2	醴泉		4				
충청(5)	文義(충북 정원)	1	6 (2.1%)		金谷(예천 용문면)	1			
	陰城(충북)	1			龍宮	1			
	忠州	2			安禮	24			
	石城(충남 부여)	1			安東	109			
	洪州(충남 홍성)	1			金溪(안동 서후면)	1			
경남(2)	玄風	1	2 (0.7%)		默谷(안동)	1			
	密陽	1			道木(안동)	2			
경북	法田	1			道村(안동 북후면)	1			
	奉化	3			漆谷	1			
	尙州	4			大邱	2			
	豊基	10			良洞(경주)	1			
	順興	43							
계	29개 지역 283명								

위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입원생의 출신지역은 29개 지역이며, 이 가운데 경북지역 출신이 254명으로 283명의 90%에 해당한다. 그 외 경기, 충청, 강원 및 경남에서 입원한 원생은 소수였다. 그러나 16·17세기에는 소수서원 원생의 출신지역이 경북이 83%이며, 평안도, 함경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서울·경기, 강원, 전라, 경남, 경북, 충청 등 전국에서 왔다. 이처럼 18·19세기에는 경북 출신의 비율이 높아지고, 출신지역의 분포가 경북과 인접한 충청도, 강원도 남부, 경남 일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2) 현재의 안동(안동, 예안, 금계, 묵곡, 도목, 도촌 등) 출신이 135명, 영주(풍기, 순흥, 榮川) 출신이 97명이다. 이 두 지역 출신 학생이 232명으로 확인이 가능한 283명의 82%를 차지한다. 이를 볼 때, 소수서원은 주로 안동과 영주를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 지역의 선비 교육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전국에서 서원이 처음 세워졌던 조선중기와 전국

적으로 서원이 남설되는 조선후기의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기인하다고 보아진다. 아울러 18세기 소수서원의 열악한 재정상황과도 관련이 깊다고 보아진다. 소수서원을 창건할 당시에는 박승임(朴承任)의 말과 같이 서원이 교육기관으로 지속하려면 성균관처럼 학비가 무료임은 물론 숙식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학생들이 모여들고 학문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인재를 교육하는 것은 국가의 급선무이고, 유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일은 교육에 있어서 급선무이다. 서울에는 관학의 교육제도가 매우 잘 갖추어져 학문에 힘쓰므로 많은 선비들이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향교에는 선비가 모이지 않아 교육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로 교육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는 바가 있어 세상에서 병폐로 여긴 지 오래되었다”¹²⁾

그리하여 소수서원 서원이 건립되고 난 뒤에도 사액의 요청은 물론 서책과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의 재력가와 경상감사를 비롯한 지방 수령들이 계속 재정을 지원하였다.¹³⁾

반면에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소수서원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다. 이는 1759년 3월 7일에 소수서원 원장과 당중(堂中) 50명이 작성한 <원중완의(院中完議)>에 잘 나타나 있다.

…근래에 와서 학규(學規)가 점점 해이되고 재용(財用)이 점점 고갈되어 온갖 폐단이 속출하였고, 지금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다. 시험 삼아 그 폐단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짚어보고 그 근원을 찾아보니, 대개 회계(會計)의 법도(法度)가 엄하지 않아 재물이 낭비되었고, 재물이 낭비되자 선비를 양육하는 제도가 폐지된 것이었다.

봄가을로 선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데 쓰이는 물자도 모두 고갈되어 구차하게 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에 이르렀는데, 만약 이대로 미적미적 넘어가다가는 장차 서원이 서원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¹⁴⁾

12) 朴承任, “소수서원 유사 대신 호조에 올림(代紹修書院有司上戶曹書)”, 『雲院雜錄』, 『국역 소수서원잡록』 (영주: 영주시, 2005), 41.

13) 송정숙(2006), 앞 논문, 71-72.

이처럼 소수서원은 재정이 고갈되어 선비를 양육하는 장학제도도 16·17세기처럼 구비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이유와 더불어 서원이 전국적으로 남של된 영향으로 먼 지역의 학생을 소수서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매력이 18·19세기에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생의 지역적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하겠다.

3.2 원생의 입원 연령과 과거 급제

3.2.1 입원 연령

서원 원생의 자격 규정은 지역·당색 또는 각 서원의 제반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중인·서얼 등 비사족층(非士族層)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었다.¹⁵⁾ 「소수서원 입원록」 제1권의 앞장에 “中人庶孽 雖大小科 勿許濫書”라고 명기하여 당시 서원이 양반지배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소수서원 원규(院規)에 의하면, 서원에 들어오는 선비는 사마시 입격자, 사마시의 초시 합격자, 학문에 뜻을 두고 조행(操行)이 있는 자로 한다고 하였다. 서원을 개설한 뜻은 훌륭한 인물을 맞이하려 함인데, 함부로 맞아들이면 훌륭한 인물이 오지 않게 되며, 이는 서원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원인이니, 그 선택을 더욱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註)에서 밝히고 있다.¹⁶⁾

도동서원의 경우는 “매번 향사일에 신진을 의논하여 추천한다. 매인이 한 사람씩 각기 추천하여 원장에게 품신한다. 추천된 신진은 반드시 20세를 넘고 학행이

14) 소수서원 원장과 당중(堂中) 50명, “원중완의(院中完議)”, 1759년 3월 7일, 嶺南文獻研究所 編, 앞책, 287.

15) 李樹煥, “18-19세기 경주 玉山書院 院任職 疏通을 둘러싼 嫡庶 간의 鄉戰”, 『朝鮮後期書院研究』(서울: 일조각, 2002), 289.

16) “무릇 서원에 들어오는 선비는 사마(司馬)일 경우 태학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다음은 초시(初試) 입격자(入格者)로 한다. 그러나 초시 입격자가 아니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문에 뜻을 두고 조행(操行)이 있는 자로서 입학을 원하면 유사(有司)가 사문(斯文)에게 고하여 맞이한다.” 周世鵬, 竹溪志, 卷6, 雜錄後; 嶺南文獻研究所 編, 앞책, 276-277.

25세	27		45세	24		65세	6	
26세	47		46세	26		66세	7	
27세	52		47세	25		67세	12	
28세	42		48세	19		68세	6	
29세	39		49세	15		69세	6	
						70세	11	22명 (1.3)
						71세	6	
						72세	7	
						73세	3	
						74세	11	
계	1,647명 (100%)							

위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8-19세기 소수서원 입원생의 연령분포를 보면, 30대, 20대, 40대, 50대, 60대, 10대, 70대의 순이며, 20-30대가 856명으로 입원 연령이 확인된 1,647명의 52%에 해당한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수서원의 입원 연령이 32·31세(58명), 38세(53명), 35·27세(52명), 30세(49명), 37세(48명), 26세(47명), 41세(46명), 50세(44명)의 순이다. 60대도 103명이고, 70대도 22명이나 된다.

지금의 나이로 볼 때에도 고령자인 60·70대에 서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다소 의외인 듯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리 낯선 광경은 아닌 듯하다. 나이 70에도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칠십초말(七十初耨)”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는 선비가문에서 관운이 늦게 터져 일흔 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라 사모관대를 하고 벼전을 처음 신는다는 뜻이다.¹⁹⁾

위와 같은 입원 연령 분석을 통해 서원 입원이 학령대가 정해져 있어 연령에 제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움에는 노소(老少)가 없는, 조손(祖孫)이 함께 다니는 열린 대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가 평생학습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이즈음의 대학도 입학연령의 폭이 넓어졌으니, 서원은 시대를 앞서는 첨단 교육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19) 경북 영주 소수박물관 학예사 박석홍과의 전화 면담, 2008. 12. 8.

3.2.2 과거 급제의 소요 연한

1) 생원·진사시

조선시대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실시한 과거를 소과(小科) 또는 사마시(司馬試)라고 한다. 고려시대 국자감시(國子監試)와 승보시(陞補試)를 계승한 것으로, 진사시는 전자를, 생원시는 후자를 계승하여 성립된 제도이다.

생원·진사시는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뉘어져 있었다. 생원시는 오경의(五經義)와 사서의(四書疑)의 제목으로 유교경전에 관한 지식을, 그리고 진사시는 부(賦)와 시(詩)의 제목으로 문예창작의 재능을 각각 시험하였다. 그리하여 합격자에게 생원 또는 진사라고 하는 일종의 학위를 수여하였다. 한 사람이 같은 해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양시(兩試)에 다 합격한 사람을 역시 양시라고 하였다. 생원·진사시에는 3년에 한차례씩 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와 국왕의 즉위와 같은 큰 경사가 있을 때 이를 기념해 실시하는 증광별시(增廣別試)가 있었다.

이 시험에서 생원과 진사를 각각 100인씩 뽑고 이들에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따라서 합격자 중의 일부 극소수가 생원 또는 진사의 자격으로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관리임용제와 직결되는 제도는 아니었다. 때문에 처음부터 관리임용제로서 출발한 문·무과(文武科)나 잡과(雜科)와는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달랐다.²⁰⁾

서원에 입원하는 목적은 공부하는 것이다. 유학에서 공부하는 목적은 수기치인(修己治人)에 있으므로 치인하기 위해 과거에 나아가고자 하였다. 그런데 조선중기 이후 영남에는 공부하는 목적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는 위인지학(爲人之學)보다도 인격 수양을 중시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두는 풍조가 있었다.

20) 宋俊浩, “생원진사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J08055&&ty=1>>, 2008.10.20 접속.

그리하여 뜻있는 선비들 가운데 아예 과거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급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었다. 조선시대는 어느 가문이나 지역의 품격(品格)을 논할 때 반드시 그 가문 또는 지역에서 배출된 홍백패(紅白牌)의 수를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간주하였던 것이 그 예이다.

18·19세기 소수서원 입원생들은 서원에 입원한 지 몇년만에 생원·진사시에 합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에 표기된 입원 연도와 「사마방목」에 기재된 생원·진사시 합격연도의 시차를 조사하였다. 생원·진사시 합격자 143명 가운데 25명은 생원·진사시 합격연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제외하고,²¹⁾ 118명을 대상으로 소수서원 입원 이후 생원·진사시 합격의 소요 연한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생원·진사시 합격의 소요 연한

입원 후 생원·진사시 합격의 소요 연한(년)		생원·진사시 합격자			
		인원수(명)		백분율(%)	
-(41-50)	-(46-50)	0	1	0	0.7
	-(41-45)	1		0.7	
-(31-40)	-(36-40)	5	9	3.5	6.3
	-(31-35)	4		2.8	
-(21-30)	-(26-30)	5	16	3.5	11.2
	-(21-25)	11		7.7	
-(11-20)	-(15-20)	10	16	7.0	11.2
	-(11-15)	6		4.2	
-(1-10)	-(6-10)	14	36	9.8	25.2
	-(1-5)	22		15.4	
0		9	9	6.3	6.3
1-10	1-5	14	22	9.8	15.4
	6-10	8		5.6	
11-20	11-15	5	9	3.5	6.3
	16-20	4		2.8	
미상		25		17.5	
계		143		100%	

21)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에 “司馬”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방목」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없는 23명과 「문과방목」에 전력이 ‘생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방목」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없는 2명을 합하여 25명이다.

위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소수서원 입원생 1,805명 가운데 생원·진사시 합격자는 전체의 약 8%에 해당하는 143명이다. 반면에 16·17세기에는 소수서원 입원생 735명 가운데 생원·진사시 합격자는 약 43%에 해당하는 313명이다.

이처럼 18·19세기 입원생의 생원·진사시 합격율이 16·17세기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현격한 것은 첫째, 서원이 남설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서원의 수가 조선후기 들어 획기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8·19세기에 소수서원 입원생의 우수성이 16·17세기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원·진사시 합격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소수서원의 재정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1543년 주세붕이 최초로 백운동서원을 설립하고 이어서 이황의 건의에 의해 소수서원으로 사액되고, 경상감사를 비롯한 지방수령들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인해 16·17세기에는 소수서원에 경향 각지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면 소수서원의 재정이 고갈되어 선비를 양육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우수한 선비들이 많이 입원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2) 생원·진사시 합격자 143명 가운데 「사마방목」을 통해 사마시 합격연도를 파악할 수 있는 원생은 118명이다. 이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78명이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이후에 입원했고, 8%에 해당하는 9명이 생원·진사시에 합격하는 해에 입원했으며, 26%에 해당하는 31명만이 서원에 입원한 후에 생원·진사시에 합격했다. 반면에 16·17세기에는 생원·진사시 합격자 313명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205명이 소수서원에 입원한 이후에 사마시에 합격했다. 이를 볼 때 소수서원에 입원한 이후 생원·진사시에 합격하는 비율이 16·17세기의 2/3에서 18·19세기에는 1/4로 현격히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이후에 서원에 입원하는 원생의 경우, 서원에 입원하는 목적은 대과인 문과급제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이후에 입원한 원생 78명 가운데 문과 급제자는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문과 급제까지 한 이후에 입원하였고, 2명²²⁾만이 서원에 입원하여 문과에 급제하

22) 이만송(李晩松, 1805-?)은 1840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9년 후인 1859년에 입원하여

였다. 이는 서원이 성균관처럼 문과 급제를 위한 준비 기관으로서의 의미는 18·19세기에 이르면 상당히 퇴색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서원에 입원한 이후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원생을 보면, 입원 이후 1-5년 사이에 합격자가 가장 많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원·진사시에 합격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입원 20년이 지나면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입원 연령이 고령화 되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처럼 서원이 과거 급제를 위한 준비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18세기 이후 영남 지역이 정치적으로 중앙 정계로부터 소외되었던 것과는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영남지역은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잦은 환국과 영조 초반의 무신란으로 큰 타격을 입고 중앙 권력에서 도태되었다.²³⁾ 남인의 정치적 쇠퇴가 과거 공부에 거리를 두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아진다.

이를 통해 18·19세기에 이르면 학문을 닦는 유생들이 소수서원 입원하는 것은 과거 공부뿐 아니라 소수서원의 원생이 되는 것 자체에도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과

과거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로서 문과(文科)는 조선시대 문관(文官)을 등용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이다. 조선시대 과거에는 문과 외에도 무과(武科)와 잡과(雜科)가 있었다. 그 밖에 문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문과의 일부가 아니고 또 관리 임용제와 직결되는 제도도 아니었던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가 있었다. 철저한 문치주의(文治主義) 아래에 있었던 당시 사회에서는 문과와 생원·진사시가 가장 중요시되었다.

이듬해인 1860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권호연(權好淵, 1824-?) 1848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8년 후인 1856년에 입원하여 3년 후인 1859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23) 李泰鎭, “18세기 南人の 정치적 쇠퇴와 嶺南地方”, 『民族文化論叢(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1, 1991. ; 李旭, “18세기 영·호남 性理學者の 經世論”, 『국학연구(한국국학진흥원)』 제9집(2006.12), 144.

사실 이 두 과거는 한편으로 권력 및 권위와 부를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에 효도하며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지상의 길이기도 하였다.

문과의 응시 자격은 생원·진사시와 같았다. 즉, 신분상의 하자만 없으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천인(賤人)과 공상인(工商人)은 제외되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특히 교육 환경이 좋은 가정의 자손들이 아니고는 과거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과거 진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간의 수학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양반들이 거의 독점하는 듯한 경향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나 그것이 결코 원칙은 아니었다.

문과에는 3년에 한 차례씩 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식년문과(式年文科)가 있고, 그 밖에 비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임시 특설의 문과가 있었다.²⁴⁾

18·19세기 소수서원에 입원한 원생들은 입원하여 독서한 지 얼마 만에 문과에 급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에 기록된 입원연도와 문과 방목」에 등재된 입격연도와 시차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문과 급제의 소요 연한

입원 후 문과 급제의 소요 연한(년)		문과 급제자			
		인원수(명)		백분율(%)	
-(41-50)	-(46-50)	0	1	0	1.6
	-(41-45)	1		1.6	
-(31-40)	-(36-40)	4	6	6.6	9.8
	-(31-35)	2		3.3	
-(21-30)	-(26-30)	1	5	1.6	8.2
	-(21-25)	4		6.6	

24) 식년문과에서는 초시(初試)·복시(覆試) 및 전시(殿試)의 3단계 시험을 거쳐 33인을 급제자로 선발하는 제도를 택하였다. 국왕의 명의로 실시하는 전시에서는 복시(회시라고도 함) 합격자의 성적 서열만을 결정하였다. 초시는 성균관과 한성부(漢城府) 및 각 도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를 각각 관시(館試)·한성시(漢城試) 및 향시(鄉試)라고 불렀다. 비정규 문과에는 다시 증광별시(增廣別試)·별시(別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의 구별이 있었다. 宋俊浩, "文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17701&ty=2>> 2008.10.26 접속.

-(11-20)	-(15-20)	6	10	9.8	16.4
	-(11-15)	4		6.6	
-(1-10)	-(6-10)	10	20	16.4	32.8
	-(1-5)	10		16.4	
0		4		6.6	
1-10	1-5	4	11	6.6	18.0
	6-10	7		11.5	
11-20	11-15	0	0	0	0
	16-20	0		0	
미상		4		6.6	
계		61		100%	

위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18·19세기 소수서원 입원생 1,805명 가운데 문과 급제자는 61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이는 16·17세기 소수서원 입원생 735명 가운데 99명이 문과에 급제하여 13.4%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1/4 수준이다.

2) 문과 급제자 61명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42명은 문과 급제 후에 소수서원에 입원했고, 7%에 해당하는 4명은 문과에 급제하는 해에 입원했으며, 18%에 해당하는 11명만이 소수서원에 입원한 후에 문과에 급제했다. 이는 16·17세기에는 문과 급제자 99명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92명이 서원에 입원한 후에 문과에 급제한 것과 비교하면 1/5 수준이다.

3) 문과급제자 가운데 생원진사시 합격자의 비율이 대폭 줄고, 유학(幼學)의 신분으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의 43명으로 70%를 넘는다.

이처럼 18·19세기 소수서원 입원생의 경우는 문과 급제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입원 후의 급제자보다 급제 후에 입원한 선비가 더 많았다. 16·17세기에 비해 문과급제자가 1/4, 서원 입원 후 급제 비율도 1/5에 불과한 것을 볼 때, 18·19세기에는 소수서원에서 수학하여 문과 급제를 통해 중앙 정계로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18·19세기에는 소수서원이 문과 급제를 위한 준비기관으로서의 의미는 다소 퇴색하고, 서원에 입원하여 원생이 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갑술환국 이후 중앙정계에서 남인의 세력이 상당히 배제되어 중앙정계로의 진출 자체가 어려웠던 당시의 정치상황도 영향을 미쳤으며, 문장 위주의 과거제의 폐단에 대한 인식 때문에 과거 공부에 매진하지 않았던 시대적 분위기와 학문을 하는 목적을 세속적인 영달에 두는 위인지학(爲人之學)보다는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두었던 당시 영남 사림의 학문적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영남학파의 적전인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이 1780년에 안동 부사이던 윤사국(尹師國)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과거공부를 전폐할 수 없지만 과거공부를 하다보면 독실한 학문 연마보다는 기괴한 문체에 힘쓰는 등 폐단이 있다고 하였다.²⁵⁾ 당시 영남학파의 거두인 이상정의 과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과거 공부에 대한 영남 사림의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보기이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을 대상으로 18·19세기 소수서원 원생의 인적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입원 인원, 출신 지역, 입원 연령, 입원 후 생원진사시와 문과 급제의 소요연한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16·17세기와 비교하여 변모양상도 파악하였다.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에 수록된 1790년부터 1888년까지의 99년 동안의 입원생 1,805명을 대상으로 입원 연도를 분석한 결과 입원생은 한 해에 대략 10명 입학하였지만 많을 때에는 26여명까지 입학하였다. 그런데 특이하게 한해에 68명에서 369명까지 대규모로 입원한 적도 있었다. 출신지역은 경북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 출신이 대다수인데, 특히 안동, 영주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입원생의 연령은 15세부터 74세로 16·17세기보다 입원연령의 폭이 넓었으며, 고령인 60대와 70대가 125명으로 전체의 7.6%나 되었다. 16·17세기보다 고령화되어 18·19세기의 입원생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40대의 순이었다.

25) 이욱, 앞 논문, 154.

과거급제 정도를 보면, 1,805명 가운데 생원·진사시 합격자가 143명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78명이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이후에 서원에 입원하였다. 문과 급제자는 61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42명은 문과에 급제한 후에 소수서원에 입원하였다. 이를 볼 때 18·19세기에 이르면 당시 선비들에게 소수서원은 과거 준비기관으로서의 의미는 다소 퇴색하고, 서원 입원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고 파악된다.

이렇게 18·19세기에 이르면 원생의 출신 지역의 범위가 좁혀지고, 입원연령이 고령화되고, 원생 가운데 생원·진사시나 문과급제자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아울러 생원·진사시나 문과 급제 후 서원에 입원하는 경향은 서원이 남설되는 당시의 사회적 환경, 재정이 고갈되어 선비를 기를 수 없는 소수서원의 열악한 재정 상황, 남인의 정치적 몰락으로 과거에 급제하더라도 중앙정계로의 진출에 제약이 있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 과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위기지학을 추구하는 영남사림의 학문적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紹修書院入院錄(필사본)」第二卷. 「紹修書院瞻錄」. 「文科榜目」, 「司馬榜目」,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남권희 외. 紹修書院所藏 古書 및 古文書 解題. 영주시 : 소수서원, 1998.
朴承任. “소수서원 유사 대신 호조에 올림(代紹修書院有司上戶曹書)”, 「국역소수서원잡록」. 영주 : 영주시, 2005.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파주 : 집문당, 2004.

李樹煥. 朝鮮後期書院研究. 서울 : 일조각, 2002.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 서울 : 집문당, 1997.

- 丁淳睦. 韓國 書院教育制度 研究]. 경산 :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0.
嶺南文獻研究所 編. 紹修書院誌]. 영주 : 嶺南文獻研究所. 2007.
- 허홍식 외.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서울: 집문당, 2003.
- 송정숙. “紹修書院 入院錄」 분석 : 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제34집(2006.9). 63-100.
- 송정숙. “紹修書院 任事錄」 연구 : 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제38집(2007.9). 103-127.
- 李泰鎭. “18세기 南人의 정치적 쇠퇴와 嶺南地方.” 『民族文化論叢(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1(1991). 195-205.
- 李旭. “18세기 영·호남 性理學者의 經世論.” 국학연구(한국국학진흥원)』 제9집(2006.12). 143-173.
- 박석홍. “신재(愼齋) 선생과 紹修書院”, 文敏公 愼齋 周世鵬先生 誕辰500週年 追慕學術大會 발표문,(1994.11.26)
- 姜祥澤. “朝鮮後期 慶南地域의 書院 研究”,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
- 경북 영주 소수박물관 학예사 박석홍과의 전화 면담. 2008. 12. 8.

